인문연구 제92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2, No. 1, pp.95~128
http://dx.doi.org/10.21211/JHUM.92.4

브레히트의 「갈릴레이의 생애」와 갈릴레이의 『대화』

– 과학자 갈릴레이의 사회적 책임문제 재검토 –

손현*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회의와 양면성
3. 『대화』에서 살비아티의 회의와 숭고성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브레히트의 「갈릴레이의 생애」와 갈릴레이의 『대화』를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갈릴레이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재검토한다. 전자는 갈릴레이의 학설철회 사건을 중심으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묻는다면 후자는 지동설에 대한 과학자들의 다른 태도를 통해 이상적 과학자의 모습을 그린다. 본고는 「생애」와 『대화』가 공통적으로 과학자의 태도로서 회의를 강조하는 반면 그 회의가 사회적이며 윤리적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인 차원에서 「생애」에서는 양면성으로, 『대화』에서는 숭고성으로 구체화함을 밝힌다. 전자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하는 작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양면성이 부각되면서 과학자 또한 체제저항적인 회의를 품고도 그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보여준다면 후자에서 과학자는 회의를 통해 모든 사물을 진리의 담지자로서 격상시키며 어떤 체제에 도달하려 하지 않는 히스테리컬한 자로서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에서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일은 과학적이기를 멈추고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이 되거나 혹은 더욱 과학적이 됨으로써 과학의 비정치성의 정치성을 실현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갈릴레이의 생애」, 『대화』, 과학자, 사회적 책임, 회의, 양면성, 숭고성, 히스테리 담론

1. 들어가는 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로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오늘날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면 아마도 그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17세기 자연과학자 갈릴레이(Galileo Galilei)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갈릴레이는 관찰과 증명에 의한 지식의 발견으로 근대과학의 초석을 다졌으며 지동설에 대한 과학적 증명으로 세계의 중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이끈 반면 자신의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속에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학설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진리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권력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이른바 '갈릴레이 사건'이다.

그런가 하면 갈릴레이는 종교재판 후 가택연금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데 그럼에도 여생을 바쳐 고전물리학의 초석을 다지는 역작 『새로운 두 과학: 고체의 강도와 낙하 법칙에 관하여』(*Discourses and Mathematical Demonstrations Relating to Two New Sciences*)를 탈고해냄으로써 다시 한 번 과학자로서의 위업을 이룬다. 종교재판에서 잠시나마 권력과 타협한 일이 결과적으로 과학의 진보를 이끈 것이다. 갈릴레이 사례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갈릴레이 사건'에만 국한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답을 얻을 수 있다. 교회든 갈릴레이든 진리를 억압한 점에서 누구도 윤리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위 '사건 이후'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갈릴레이는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반면 그 책임을 벗어난 곳에서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결코 단면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즉 사회적 책임의 당위성이 아니라 그 정도와 방식을 거듭 묻게 한다는 점에서 갈릴레이 사례는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 갈릴레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저술로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극작품 「갈릴레이의 생애」("Life of Galileo"; 이하 「생애」)[1]를 꼽을 수 있다. 갈릴레이는 그의 생애의 극적 요소 때문인 듯 전기 작품에서는 자주 다루어진다. 반면 「생애」는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갈릴레이를 하나의 캐릭터로서 생동감 있게 재현해내고 문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갈릴레이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생애」는 갈릴레이 사건의 전과 후를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의 복잡성을 비껴

1) 작품 인용은 국역본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차경아 옮김, 「갈릴레이의 생애」, 『갈릴레이의 생애』, 서울, 2001, pp. 33-172를 기준으로 하며 개작 과정 및 작가 노트를 확인하는 등 필요에 따라 영역본 Bertolt Brecht, *Life of Galileo,* London: Penguin Books, 2008을 참조하였다.

가지 않는 점에서 내용상의 무게감을 갖추고 있다. 즉 「생애」는 문학적인 생동감 속에서 갈릴레이 사건의 핵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점에서 사실중심적인 어떤 자료보다 해석적 영향력이 크다. 물론 여기에는 「생애」는 실존 과학자를 문학 속으로 소환한 작품의 효시로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학사적 의의와는 별도로 과학자 갈릴레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애」의 해석은 그 작위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비평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생애」는 1943년 덴마크 판으로 처음 발표된 후 두 번의 개작을 거쳐 1957년 베를린 판으로 완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석의 핵심은 「생애」의 종결부, 즉 '사건 이후' 가택연금 상태의 갈릴레이를 옛 제자 안드레아(Andrea)가 찾아오는 장면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덴마크 판의 경우 갈릴레이가 역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역작을 완성하였음을 알리자 안드레아는 그제야 학설 철회에 숨은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두 사람은 암흑 가운데서도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난다"는 것이 갈릴레이의 궁극적인 신념이다(Brecht 185). 반면 베를린 판에서는 인간의지에 대한 믿음이 갈릴레이의 "가차 없는 분석"(168)으로 대체된다.[2] 그는 세계에 드리운 "운무"를 언급하며, 자신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자들도 "자신들의 지식을 오로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만 적용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안드레아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에도 갈릴레이는 침묵한다(166-168). 그러니까 덴마크 판이 윤리적 잣대를 낮추어 갈릴레이를 소위 전

2) 이하 「생애」의 인용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국역본을 기준으로 본문에서 면수 표기로 대신한다. 「생애」는 개작의도를 반영한 베를린 판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 일반적이며 국역본 역시 베를린 판의 번역이다.

략적 후퇴를 구사한 영악한 저항자로 묘사한다면 베를린 판은 진리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배신자로 그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 수정이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등을 통해 브레히트가 과학기술이 점점 더 오용되는 사례를 목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3)]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인용하며 선명히 드러내고자 한 브레히트의 주제의식에 대해 일찍이 스켈터(Max Spalter)는 「생애」가 "특히 다큐멘터리적임"을 고려할 때 "역사적 신빙성과 [극작가의 의도된] 특별한 탄원이 불안하게 섞여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종결부에서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의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회환에 잠기는 장면이 극 전체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한다(Spalter 193, 289). 한마디로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전달하기에는 작품이 내적 개연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헨(M. A. Cohen)이나 폴셀(Patricia R. Paulsell) 등은 「생애」의 목적이 분명한 교훈을 전달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 점에서 다소의 불일치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하지만 그런 교훈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 그것은 과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에슬린(Martin Esslin)은 「생애」에서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간의 불일치가 그간 비평가들에 의해 묵인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대신 작가가 의도했든 안했든 「생애」가 보여주는 과학의 실체는 "생식 본능만큼이나 비이성적으로 뿌리내린 본능적

3) 대표적으로 박찬일, pp. 6-34와 Brecht, pp, 113-155를 참조할 것.

4) 코헨은 작품에서 일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것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작가가 "교조적"일 만큼 명확한 교훈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Cohen 80-97). 폴셀은 브레히트가 20세기의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인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17세기 경험주의 과학의 한계를 비판하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Paulsell 267-284).

욕구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Esslin 234)고 주장한다. 「생애」에서 갈릴레이가 식사 등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듯 과학이란 윤리나 대의와는 상관없는, 기계적이고도 반복적인 충동의 일종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페스코(Jacqueline M. Paskow)는 브레히트가 「생애」에서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계몽적 기능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하나 무의식적으로는 과학이 "이성적이며 이타적으로 동기화된 기획인 척 하는 것 이외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생애」가 보여주는 과학은 "관음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일 뿐이라는 비관적 주장을 펼친다(Paskow 43). 다시 말해 「생애」가 한편으로 작품의 내적 개연성을 의심받는다면 그 의심은 「생애」가 그려내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 가운데 필자는 과학자 갈릴레이의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으로 갈릴레이의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이하 『대화』)에 주목한다. 『대화』는 갈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책으로 「생애」의 실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생애」는 갈릴레이의 서신이나 저술의 일부를 공연 중간에 무대 스크린에 띄워 보여줄 정도로 갈릴레이 과학의 사실성을 중시하는데 그 점에서 『대화』는 갈릴레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기에 좋은 실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화』는 과학 이론서로서 「생애」가 다루듯이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화』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살비아티(Salviati), 사그레도(Sagredo), 심플리치오(Simplicio)[5]라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흘에 걸쳐 나눈 대화를 마

5) 살비아티와 사그레도는 갈릴레이의 지인을 모델로 하였으며 심플리치오는 당대의 보수신학자들을 모델로 하여 6세기 철학자 심플리치우스(Simplicius of Cilicia)로부터 이름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자는 '아둔한 이'(the simple-minded)라는 우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치 연극의 4막처럼 구성한 이야기책으로, 각 인물은 지동설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 입장은 각 인물의 성격 및 과학적 태도와도 연결된다. 즉 『대화』를 문학작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갈릴레이 역시 다른 유형의 과학자를 등장시킨 이야기 형식의 상상의 공간에서 이상적인 과학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놓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화』를 이런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읽은 적은 없지만 「생애」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읽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생애」와 『대화』의 비교 읽기를 통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생애」와 『대화』의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은 두 저술이 공통적으로 과학자의 태도로서 "회의"(doubt)를 강조하는 반면 각 저술에서 회의는 사회적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현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애」에서의 갈릴레이 및 『대화』에서 갈릴레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살비아티의 중요한 성격적 특징은 회의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만약 「생애」가 회의하는 과학자에 대한 브레히트의 문학적 시각을 보여준다면 『대화』는 그에 대한 갈릴레이의 과학적 시각을 보여준다. 반면 회의는 각 저술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하는데, 이를 필자는 큰 범주에서 각각 양면성과 숭고성으로 파악한다. 물론 이런 차이는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상대적인 두드러짐을 의미하는데, 그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에서 양면성은 작가의 의도와 달리 과학의 윤리적 모호성으로, 『대화』에서 숭고성은 과학의 비정치성의 정치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진다고 필자는 파악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는 과학의 본질과 윤리성을 재고하는데 좋은 좌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화』는 과학이론을 논증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인문학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특별한 해석틀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정신분석학자 라캉(Jacques Lacan)

의 네 가지 담론(four discourses) 이론과 그에 기반한 과학론을 빌고자 한다. 네 가지 담론 이론이란 라캉이 인간의 언어행위를 담론 구조에 따라 주인담론(discourse of the master), 대학담론(discourse of the university), 히스테리담론(discourse of the hysteric), 분석가 담론(discourse of the analyst)의 네 가지로 유형화한 것으로 라캉은 과학을 초기에는 대학담론으로 분류하였으나 후기에는 히스테리담론으로 수정하였다(Fink 138-46). 필자는 『대화』에서 살비아티의 과학을 히스테리담론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화』가 말하고자 하는 과학의 윤리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본고가 끌어낸 숭고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히스테리 담론을 구사하는 자로서 과학자의 윤리성을 의미하는 셈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본고는 「생애」와 『대화』를 각각 회의적 태도라는 공통적 요소와 양면성과 숭고성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중심으로 때에 따라 새로운 해석 틀을 빌어 비교하여 읽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2.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회의와 양면성

「생애」에서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의 과학적 태도의 핵심으로 회의를 꼽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성좌 좌표를 들여다보고 있던 갈릴레이는 식사시중을 드는 어린 제자 안드레아에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대는 회의에 의해 도래할 것임을 알린다.

> 옛날 책들에 씌어진 것은 이미 그들에게 흡족치 못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만물이 앉았던 자리에 이젠 의혹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그래요, 그건 책에 씌어 있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직접 보게 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엄숙한

> 진리라도 사람들은 그 어깨를 노크한단다. 지금껏 한 번도 의혹을 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회의하게 되었거든.(38)

「생애」에서 갈릴레이가 안드레아에게 가르치는 것이 "보는 것"(40)이듯이 진리는 이제 책에 쓰인 대로가 아니라 회의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발견된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증명하는 것도 나의 옳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실패함으로써 다시 내가 옳지 않았나하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회의의 방식을 따른다.

> 우리는 모든 것을, 일체를 다시 한 번 의심해 보는 거야. […]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정지 상태를 증명해 보겠다는 철두철미한 결심을 하고 태양 관측에 임하세!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완전히 절망적인 패배감으로 상처를 핥으면서 더없이 처절한 기분으로 비로소 다시 묻기 시작하세, 그래도 역시 우리가 옳지 않았는가, 지구는 돌고 있는가를!(130)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증명하는 적극적 방식이 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물음으로써 시작된다. 하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회의를 통해 하나의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 갈릴레이 과학의 원리이다.

그런데 갈릴레이의 이런 회의적 태도는 「생애」에서 그의 지배적 성격이기보다는 그의 양면성의 한 면에 해당한다. 갈릴레이의 학문적인 회의는 성격상 그 이면을 갖는다. 예를 들어 극 초반에 새로운 발명품인 망원경이 자신에게 가져올 현실적 이익에 마음이 들뜬 갈릴레이에게 동료학자 사그레도는 "학문분야에서 그토록 회의적인 자네가 학문을 추진하기에 용이해 보이는 대목에선 어쩌자고 온통 어린애처럼 쉽게 믿는지 모르겠네"(69)라고 핀잔을 준다.

또한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바르베리니 추기경(Cardinal Barberini)이 차기 교황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연구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들뜬 갈릴레이를 보고 그의 가정부 사티부인(Mrs. Sarti)은 "작은 얼음 조각의 무게는 쉰 번이나 달아보시면서, 당신 사정에 맞는 일이 닥치면 장님처럼 믿으신다니까?"(126-27)라고 대꾸한다. 마치 괴짜 천재 유형의 인물처럼 갈릴레이는 어떤 한 면이 지나치게 뛰어난 반면 그 이면이 지나치게 단순한 양면적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양면성은 대학 이사장이 갈릴레이를 두고 "위대하지만 불만스러운 남자"(50)라고 칭하는 데서도 엿보인다. 갈릴레이는 채워져 있지만 항상 결핍을 느끼는 자다.

갈릴레이의 성격적인 양면성은 「생애」에서 과학의 양면성과 공명한다. 갈릴레이의 과학은 멀리 있는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망원경은 갈릴레이가 하늘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과학도구다. 그런데 「생애」에서 하늘을 관측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구가 아닌 태양이라는 새로운 우주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는 지상에서 권력의 중심이 새롭게 이동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망원경이 정치 혁명의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망원경은 오히려 지상에서 권력의 중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처음 베네치아(Venice) 시의회에 전달하면서 그 용도를 설명하듯이 망원경은 "전쟁 중에 상대편 군함의 숫자와 종류를 적들이 아군을 알아보는 것보다 두 시간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54). 즉 과학의 효용성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과학의 양면성은 「생애」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은 인격이 없으므로 누군가는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성격적인 양면성은

과연 그가 과학자로서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낳는 요소로 작용한다. 갈릴레이의 양면성은 그가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인격적인 이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가는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이중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6)]

역사적으로 망원경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애」에서 갈릴레이는 그 발명의 공을 가로챈 인물로 그려진다. 문하생으로 들어온 루도비코(Ludovico)로부터 망원경 발명 소식을 전해들은 갈릴레이는 금방 그 원리를 알아채고 망원경을 제작해서는 마치 자신의 발명품인양 시의회에 "17년간의 끈질긴 연구의 결실"(54)로 내 놓는다. 브레히트는 갈릴레이가 망원경 덮개의 색깔을 네덜란드제의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었음을 지적함으로써(55) 이 표절에 있어 갈릴레이의 고의성을 부각시킨다. 반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시연하는 그 현장에서 사그레도에게 귀엣말로 자신은 망원경을 "달을 향해 조준했다"고 속삭인다. 자신은 "돈벌이가 되는 허접한 쓰레기"가 될 뻔한 망원경을 하늘을 관찰하는 "훨씬 값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54). 부정한 수단과 고결한 목표가 죄의식 없이 양면적으로 공존하는 셈이다. 특히 망원경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천문학적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배율을 개선한 것은 순전히 갈릴레이의 공임은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는데 브레히트는 그 사실 대신 덮개 색깔을 바꾼 것을

---

6) 비아지올리(Mario Biagioli)가 『궁정인 갈릴레이』(*Galileo, Courtier: The Practice of Science in the Culture of Absolutism*)에서 자세히 다루듯이 갈릴레이는 자신이 발견한 4개의 목성 위성을 당시 메디치가의 수장인 코지모(Cosimo) 1세 대공에게 헌정함으로써 시골대학의 무명교수에서 플로렌스 궁정의 수학교수로 영전할 정도로 수완이 뛰어나고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결코 단면적인 인물은 아닌 셈이다. 이 점에서 브레히트가 그를 양면적 인간으로 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지만 전기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양면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작가의 작품 의도에 따른 것이다.

언급함으로써 갈릴레이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갈릴레이의 일상적인 활동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생애」에서 갈릴레이는 사적 영역에서는 식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적 영역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활동영역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식사란 이성의 활동인 연구에 대비되는 감각적 활동을 의미한다. 갈릴레이는 실제 식사를 중요시했고 특히 포도주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런데 식사가 감각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갈릴레이가 역시 감각적 활동으로 중시한 문학과 미술은 「생애」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8] 문학과 예술이 '심미적인' 것이라면 식사란 보다 직접적인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점에서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식사는 그의 활동 형태 상 감각과 이성 간의 대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식사와 연구에 국한함으로써 감각과 이성의 대비를 강조하는 것은 감각과 이성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감각이든 이성이든 순수하게 독립적인 것은 없다. 「생애」가 과학에 대해 강조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과학은 이성의 열매이긴 하지만 과학을 열매 맺게 하는 또 다른 추동력이 감각적인 열정, 특히 식탐이기 때문이다. 즉 지식에 목마른 자는 "불행한 탐식가"(115)다.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과학적 열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그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긴 하다. 갈릴레이가 활동하던 당시 지동설은 이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주장되었었다. 하지만

---

7) 갈릴레이와 딸 비르기니아(Virginia) 간의 서간집인 『갈릴레이의 딸』은 딸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포도주를 구해주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데이바 소벨 297-98, 304-05 등)

8) 갈릴레이는 유년시절 수도원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고 한 때 화가로서 생업을 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림에 상당한 재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요하네스 헴레벤 24, 100, 109). 이런 회화적 소양이 그의 천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가설로서만 인정되었다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때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생애」에서 곧 이성적 인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 어떤 사람이라도 돌을 떨어뜨리는 것을 바라보고는 돌을 낙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네. 어떤 사람도 그럴 수는 없지. 엄연한 증거에서 나오는 매혹이란 엄청난 것이지. 이 매혹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굴복하고,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굴복할 걸세. 사유란 인간 종족이 지닌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라네.(65)

과학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시골 농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적 증거에 기반하여 각자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 증거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 진실은 우리가 관철해내는 그만큼만 관철된다오. 이성의 승리는 오로지 이성적 인간의 승리일 뿐이요. 당신들은 당신네 캄파냐 농부들을 흡사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 낀 이끼처럼 묘사하고 있구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그들 농부들이 필요한 것과는 어긋나리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오?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고 사고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양수시설이라도 그들에게 쓸모가 없단 말이오.(114)

과학자가 찾아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나 성질에 상관없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점에서 과학적 지식은 평등하다. 귀족이 발견한 지식이 농부의 양수시설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발견한 지식이 귀족의 식탁을 풍족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애」에서 이성의 힘은 이성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이성의 반이성적인 면은 사그레도의 말처럼 "인간은 이성에 접근할 수 없다"(64)는 비관주의적인 시각에서도 성립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애」에서 이성의 양면성은 보다 중요하게는 이성 자체에 내재하는 비이성적인 요소 때문이다. 이성이란 식사와 같은 말초적인 감각활동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는 "훌륭한 식탁에서 대체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61)거나 "즐기는 것은 일종의 과업"(125)이라고 말한다. 이성의 연료는 좋은 식사이며 즐긴다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과업이다. 식사든 놀이든 즐길 줄 알아야 제대로 사고할 줄도 안다.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양면성은 그의 딸 비르기니아(Virginia)와의 관계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비르기니아는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유일한 가족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과는 아주 어긋난다. 실제로 갈릴레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포함한 자녀 셋을 두었으며 그 중 두 딸은 일찌감치 수녀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이런 양육방식은 당시 사생아 자녀들에게 수녀원이 유일한 해법이었다거나 갈릴레이가 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첫째 딸은 수녀원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현실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측면에서 갈릴레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제이모나(Ludovico Geymonat) 조차 그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정도로 갈릴레이의 대표적인 이면으로 여겨진다(Geymonat 56). 어찌 보면 갈릴레이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가족을 희생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생애」는 갈릴레이의 이런 무자비함을 그의 과학의 정치적 진보성과 대비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무자비한' 보수성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활용한다. 비르기니아는 갈릴레이가 시의회에 망원경을 전달하는 장면에서 열다섯 살의 앳된 소녀로 쿠션에 망원경

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망원경을 자신의 발명품으로 선전할 때 그 망원경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극 중에서 갈릴레이는 사티부인의 아들인 안드레아를 연구조교로 두고 있으므로 시연회에서 갈릴레이를 보조하기에는 후자가 더 적절하다. 그럼에도 비르기니아가 그 역할을 떠맡는 것은 그녀의 여성성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서 비르기니아의 여성성은 한편으로 망원경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불순한 기획을 가려주는 가림막의 역할을 한다.

첫 장면에서 비하된 여성성은 갈릴레이가 비르기니아의 학문적 호기심을 꺾는 장면에서 다시 나타난다. 비르기니아는 시연회 후 아버지의 망원경을 궁금해 하며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건 장난감이 아니다"는 한마디로 그녀의 호기심을 꺾는다. 비르기니아가 거듭 아버지의 연구에 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는 "네가 필요한 건 없다"며 그녀의 말문을 막는다. 대신 갈릴레이는 마치 들으라는 듯이 "딸 어깨 너머로" 사그레도에게 자신이 플로렌스에 "궁중 수학 교사"로 부임할 것임을 얘기함으로써 비르기니아가 그곳에서의 궁중생활을 기대하게 만든다(66). 사실 이런 장면은 너무나 상투적이어서 갈릴레이의 전기적 사실에 무지하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갈릴레이의 과학이 거리에서 정치혁명의 기제로 작용한다면 거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폭력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비르기니아는 아버지의 문하생인 루도비코와 사랑에 빠진다. 루도비코는 "학문에 관해서는 전혀 백지"인 탓에 평균이상의 교습비[9]를 내고도 "약간의 과학이 필요하여"(45) 갈릴레이를 찾아온 인물로 학문이나 결혼을 자신의 신

9) 갈릴레이는 루도비코에게 평균 교습비인 10스쿠디 보다 많은 15스쿠디를 요구한다.

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속물로 그려진다. 비르기니아와 루도비코의 사랑은 전자에게는 장식물로서의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인정효과를, 후자에게는 장인 갈릴레이의 명성으로 인한 후광효과를 의미하는 셈이다.

「생애」가 부각시키는 갈릴레이 과학의 반여성주의적 보수성을 고려할 때 비르기니아와 루드비코의 파혼은 특별한 해석을 요한다. 루도비코는 갈릴레이가 천문관측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자 결국 비르기니아와 파혼한다.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우리 마을의 교회당에 앉아서도 훌륭하게 보여야 할 것"(126)이므로 교회의 교리에 위반되는 학설을 퍼트리는 인물의 딸과 결혼할 수는 없다. 이 파혼은, 코헨이 주장하듯이, 갈릴레이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대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82). 루도비코가 파혼을 암시하는 장면에서 천문관측 준비에 정신이 팔려 건성으로 대답하는 갈릴레이의 모습은 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의 열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르기니아의 희생이 단순히 행복의 희생이 아니라 여성성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파혼은 갈릴레이 과학의 반여성주의적 보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지동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주에 대한 신화, 즉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주변을 천구가 에워싸고 있다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중심주의가 내포하는 중심과 주변, 하늘과 땅, 신과 인간 등의 계급적 신화가 해체되는 대신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아무런 거점 없이" 자유롭게 항해를 하는 곳이며 그런 우주에서는 "누구라도 중심점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중심점이 아[닌]"(39) 세계가 열린 것이다. 물론 폴셀이 지적하듯이 이런 탈중심적 우주관은 갈릴레이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 가능해진 세계관이며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이동시킨 중심이동론에 가깝다(Paulsell 267-75). 브레히트가 갈릴레이 과학의

탈신화적 함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급적인 평등화를 의미하도록 최대한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탈신화적 기능은 여성신화의 폐기를 동반한다. 갈릴레이의 천문학은 달의 관측에서 시작되었다. 달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수정구처럼 맑고 매끈해 보이는 탓에 전통적으로 순결한 여성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관측한 달은 표면이 울퉁불퉁했고 스스로 빛도 내지 않았다. 「생애」에서 사제들이 갈릴레이의 천문학을 두고 "제발 저 달 위로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으련만! 여보게들, 달에는 흉측하게 날카로운 산봉우리들이 있다는구먼!"(92)이라고 비웃는 것은 그의 과학적 발견 중에서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가장 인상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발견은 달에 관한 순결한 여성미의 신화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비르기니아의 파혼은 바로 천구에 대한 여성신화의 폐기와 맥을 같이 한다. 그녀의 여성성이 그와 더불어 폐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를 비웃는 사제들이 빙글빙글 도는 지구를 두고 "늙은 할망구" 운운하거나 "비너스가 벌써 삐딱하게 기울어졌소. 내 눈엔 엉덩짝이 절반 밖에 안 보이는 걸"이라는 등의 희롱성 농담을 주고받는가 하면(92), 갈릴레이조차 루도비코에게 "금성의 위상들이 내 딸의 엉덩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데"(126)라고 농담을 건네는 것은 사실상 갈릴레이의 과학이 비르기니아를 그녀의 여성성으로부터 소외시킴을 의미한다. "저의 가문 같은 집안의 결혼은, 단지 성적 관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126)는 루도비코의 항변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갈릴레이의 과학적 프레임에서 비르기니아의 여성성은 더 이상 성적 매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물론 여성성의 폐지는 관습적인 구속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중심주의의 해체처럼 성차의 해체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애」에서 여성성은 극복해야 할 관습이기 보다는—비록 속물적일지언정—한 여성의 행복의 조건으로 설

정되어 있으며 갈릴레이의 과학이 그녀의 희생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여성신화는 해체되기보다는 희생된다는 점에서 그 과학의 반여성주의적 보수성을 거듭 드러내는 것이다.

「생애」에서 갈릴레이의 양면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당연히 가택연금 상태에서 갈릴레이가 안드레아와 마주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갈릴레이는 권력에 굴복하여 학설을 철회한 배반자이자 역경을 딛고 학문적 위업을 이룬 저항자로서 기존 사회체계와 갈등하는 근대 과학자를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생애」는 이 갈등하는 과학자에 대한 윤리적 해석을 의도한 작품으로 최소한 베를린 판에 이르러서는 강한 목소리로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애」가 일관되게 갈릴레이를 양면적 구도에서 재현하는 상황에서 이런 해석적 단호함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양면성을 속성으로 하는 한 갈등의 해소는 자의적이고 작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작품의 개작 과정에서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에 대해 교활한 저항자와 윤리적 배반자라는 두 개의 해석 추를 오간 것은 갈릴레이 사례의 복잡성에 더해 양면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의 내적 구조상 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애」에서 과학자 갈릴레이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점점 예리해지는 반면 작품자체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

3. 『대화』에서 살비아티의 회의와 숭고성

『대화』는 갈릴레이가 세 명의 등장인물을 내세워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두 개의 우주 체계에 대해 논쟁하는 책이다. 논쟁은 갈릴레이의 입장에서 지동설을 지지하는 살비아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이원론에 입각하여 천동설을 지지하는 심플리치오 간에 주

로 이루어지고 사그레도는 두 인물의 논쟁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사그레도는 중개자이지만 살비아티에 버금가는 과학지식을 갖추고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살비아티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대화』에서 심플리치오가 살비아티의 지동설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10]는 것이다. 논리로서는 성립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 과학적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요한다. 살비아티가 천동설의 토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는 눈으로 본 것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눈으로 본 것과 추론한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과학을 펼쳤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물질과 땅의 물질을 구별하여 우주가 불변하는 천구와 변화무쌍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눈으로 관측한 것에 기초함을 의미한다. 천구가 불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천구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관측하는 것을 사색하는 것보다 더 중시했[다]"(191).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은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적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의 비과학성은 그가 "하늘의 물질들과 땅의 물질들을 구별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그들의 운동이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81)는 사실에 있다. 즉 관측을 바탕으로 추론을 한 것인데 눈으로 본 것을 확신함으로써 추론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추

10)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음, 이무현 옮김,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 사이언스북스, 2016, p. 125. 이하 『대화』의 인용은 본문에서 면수 표기로 대신한다.

론이라기보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천체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체는 불변하다고 믿는다면 지구상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불변하다고 말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99).

이와 대조적으로 살비아티 과학의 특징은 모든 것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다. 이 때 회의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마치 영(zero)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듯이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과학성은 자신의 눈을 확신한데 있다. 그는 "하늘은 불변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했지 "하늘은 불변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를 써서 그렇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다(108). 또한 추론을 당연시 하면 눈으로 보고도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보여주어도 "망원경에서 뭔가 헛것이 보였거나"(104), 마치 수정이나 호박 같은 보석들이 투명도에 따라 오목하고나 볼록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달의 겉과 속에 검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서 그렇다"(128)고 주장한다. 살비아티가 지적하듯이, 확신을 따를 경우 눈으로 본 것과 생각한 것을 일치시키기란 "조금도 어렵지 않다"(108). 과학적 태도란 항상 영의 지점에서 다시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데모스테네스가 천 명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평범한 사람이 우연히 진리를 발견한다면 이 한 사람을 못 당하는"(105)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살비아티의 과학은 태양 흑점과 달의 광원을 두고 심플리치오와 논쟁하는데서 그 특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태양 흑점이란 태양 표면에 출몰하는 검은 반점을 이르는데, 천체는 불변하다는 천동설의 관점에서 보면 해의 완벽함에 상처를 내는 불가해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심플리치오는 이에 대해 여러 종류의 어두운

물체들이 거리를 두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마치 "양파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검은 물체들이 점점이 박혀서" 일정한 규칙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설명이 "천체가 절대불변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고 편리한 설명"이라고 말한다(104-05).

반면 살비아티는 태양 흑점은 "태양의 표면에 붙어 있는" 태양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관측 사실을 증거로 든다. 첫째, 흑점이 태양에서 거리를 두고 그 주변을 돌고 있다면 흑점이 사라지는 것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흑점이 태양 주변을 돌다가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흑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태양 가운데서는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다가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흑점은 태양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서 사라진다"(106). 즉 흑점이 태양 표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태양이 돌 때 태양과 더불어 가운데서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다.

흑점의 생김새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한다. 흑점이 독립적으로 돌고 있다면 흑점이 태양의 중심에 있을 때나 가장자리에 있을 때나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일한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흑점은 중심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모양이 "아주 가늘어진다"(106). 살비아티의 비유를 빌면 태양 표면은 "공 표면처럼 굽어 있고" 흑점이 태양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이 돌 때 그렇듯이 태양이 돌 때 그 표면의 흑점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이다. 즉 심플리치오가 관측 사실을 주어진 원칙에 일치하도록 설명한다면 살비아티는 하나의 관측사실을 다른 관측사실에 비추어 이해한다. 태양의 운동 원리를 공의 운동 원리와 비교함으로써 흑점의 성질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살비아티의 과학은 흑점의 변화를 눈으로 정확하게 관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과 공을 같은 영의 지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상을, 예를 들어 천상과 지상의 사물이라는 구분 없이, 같은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이해할 때 흑점에 대한 근거 있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애」에서 계급적인 평등화의 함의를 갖는 수평적 사고가 『대화』에서는 대상의 원점화로 작용하는 셈이다.

달빛에 대한 살비아티의 발견 또한 동일한 과학적 원리에 따른다. 살비아티는 달은 지구의 표면과 같이 울퉁불퉁한데 그렇기 때문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살비아티는 먼저 표면이 매끈한 거울을 표면이 울퉁불퉁한 벽면 위에 설치한 후 멀리 떨어져서 보면 통념과 달리 울퉁불퉁한 벽면이 더 밝게 빛남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햇빛에 반사된 빛이 비치는 좁은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거울과 벽면을 보면 이번엔 거울의 빛은 태양을 보듯 눈부신 반면 벽면의 빛은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달빛은 태양빛과 달리 은은한데 이는 달의 표면이 벽면처럼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태양빛이 반사된 때문임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살비아티는 다시 매끈한 거울 대신 볼록거울을 설치하고는 반대편에서 보면 이젠 눈이 부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짝하고 잠깐 빛날 뿐 주변이 전혀 빛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우리의 시선에 닿아야하는데 볼록거울의 경우 반사된 태양빛이 여러 각도로 분산되기 때문에 빛이 눈과 만나는 지점에서만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비아티는 다시 한 번 달이 둥글고 환하게 보이는 것은 달의 표면이 볼록거울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여 빛이 여러 각도로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임을 증명한다(129-39). 거울과 벽, 그리고 매끈함과 울퉁불퉁함에 관한 통상적인 선입견이 사라짐으로써 빛이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표면에서 유래한다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살비아티는 심플리치오뿐만 아니라 사그레도와 비교할 때 과학적 태도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후자는 살비아티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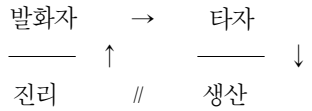
"판단력이 뛰어나고 명민[하다]"거나 "하나를 알면 그것을 갖고 추론을 해서 둘을 알아낸다]"(124)고 칭송받을 만큼 지식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세 등장인물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살비아티가 심플리치오에 대해서는 그의 의견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반면 사그레도에 대해서는 종종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살비아티의 표현을 빌면, "이야기가 [궤도에서] 벗어나[는]"(110) 경우, 즉 사그레도가 살비아티와 심플리치오의 논쟁을 그 본질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그레도는 지동설을 두고 만약 지동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면 세계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늘어놓는다. 그러자 살비아티는 그렇다고 "당장 새로운 철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110)고 응수한다. 세상의 철학은 한 사람의 외침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한 세상에는 학문적 명예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탓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겐 "말장난"일 뿐이다(161). 명예를 탐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을 탓하는 것도 과학자의 일이 아니다. 사그레도가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둔함을 탓하자 살비아티는 "그 사람들의 무의미한 과장을 갖고 쓸데없이 따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원래 계획 했던 대로 계속 나아가세"(561)라고 충고한다. 그의 본분은 항상 회의의 태도로 돌아오는 것, 즉 "양측이 제시하는 온갖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과연 유효한지 검토하는 것"이요,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561).

『대화』에서 사그레도와 살비아티는 함께 지동설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갈릴레이가 『대화』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헌정한 사실 또한 심플리치오와는 달리 사그레도와 살비아티 간의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게 한다. 하지만 두 인물 간에 미세하지만 일정하게 반복되는 위와 같은 균열은 갈릴레이가 과학자의 모델로서 사그레도와 살비아티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그 차이를 라캉의 네 가지 담론이론을 빌어 심플리치오의 과학을 주인담론으로, 사그레도의 과학을 대학담론으로, 그리고 살비아티의 과학을 히스테리담론으로 구분하고 각 담론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11]

라캉은 인간의 운명은 언어가 지배한다고 보고 언어행위로서 담론은 그 구조의 차이를 통해 언어행위자 개인의 주체성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의 담론이론은 담론을 구성하는 네 개의 포지션(positions), 즉 담론의 화자로서의 발화자(agent)와 담론의 상대자로서의 타자(other), 그리고 담론이 생산해내는 것으로서의 생산(production)과 담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진리(truth)의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위 도식에서 화살표는 영향의 방향을, 가로선은 장애물을, 이중 세로선은 단절을 의미한다. 즉 담론은 진리가 발화자에게 영향을 미쳐 발화자가 타자에게 발화함으로써 시작하고 그런 소통의 효과가 생산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발화자는 진리로부터, 생산은 타자

11) 이하 라캉의 담론이론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and Knowledge, 1972-1973,*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Bruce Fink, New York: Norton, 1975; Jacques Lacan, "Science and Truth", trans., Bruce Fink, *Newsletter of the Freudian Field,* 3, 1989. pp. 4-29; Bruce Fink,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 김태숙, 2004, 「라깡의 네 가지 담론」, 『현대정신분석』 제6권 제1호, 1995, pp. 39-61;. 김용수, 「라캉의 대학담론과 자본주의: 『세미나 17』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7권 제2호, 2012, pp. 103-122.

로부터 소외되며 진리와 생산 사이는 단절된다. 언어란 기표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지시하도록 구조화된 임의적인 구조물로서 존재의 실재(the real)와는 분리되어 그 자체의 내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나의 무의식이다. 따라서 라캉은 언어로는 결코 진리에 닿을 수 없으며 언어가 생산하는 것은 단지 말의 효과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담론의 차이는 위의 포지션에 담론을 구성하는 네 개의 조항(terms)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담론의 기본형이라고 할 주인담론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된다.

주인기표	지식기표
분열된 주체	오브제 아

위의 도식에서 주인기표(S1)는 언어행위에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심점을, 지식기표(S2)는 주인기표를 제외한 모든 다른 기표들의 사슬이 만들어내는 지식을, 분열된 주체($)는 상징질서 속에서 실재와 분리된 채 등장하는 거세된 언어주체를, 그리고 오브제 아(objet a)[12]는 분열된 주체의 욕망의 원인으로서 존재의 실재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는 부분대상을 의미한다. 즉 주인담론은 주인기표가 행위자가 되어 지식기표에게 말을 걸어 삶의 실재에 대한 환상을 생산한다. 진리의 자리에 온 분열된 주체는 주인담론이 표현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 거세된 주체임을 의미한다.

반면 대학담론과 히스테리담론은 주인담론에서 네 조항의 위치를 각각 시계 반대방향과 시계방향으로 한 번씩 이동한 형태로 나타난다.

12) '오브제 아'는 '대상'이라는 뜻의 불어 'objet'와 '다른' 이라는 뜻의 불어 'autre'로 이루어진 말로 번역하면 (욕망의 무수한) '다른 대상' 혹은 '부분대상'이라는 뜻인데 단어의 기호(sign)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없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식기표	오브제 아		분열된 주체	주인기표
주인기표	분열된 주체		오브제 아	지식기표
<대학담론>			<히스테리 담론>	

대학담론과 히스테리담론에서 각 조항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놓인다. 즉 대학담론의 경우 지식기표가 행위자가 되어 오브제 아에 말을 걸고 이는 언어의 한계로 분열된 주체를 생산한다. 이 담론이 표현하고자하는 것은 주인기표다. 대학담론은 지식을 통해 삶의 실재에 도전하나 언어의 한계로 분열된 주체를 생산하는 대신 주인기표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지식, 혹은 "정치적 권력구조"(Fink, 132)를 구성하는 담론임을 의미한다. 반면 히스테리담론의 경우 분열된 주체가 행위자로서 주인기표에게 말을 걸어 지식을 생산한다. 주체가 자신의 거세에 대한 답으로 분열된 주인기표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를 요구하고 이 때 지식은 주인기표로부터 유리된 형태로 생산되는 것이다. 이 담론이 표현하고자하는 것은 오브제 아다. 즉 히스테리 담론은 삶의 실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특징으로 한다. 그 질문으로 주인기표를 압박하지만 결국 지식은 스스로의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행위자는 분열된 주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대화』에서 심플리치오의 과학이, 적어도 과학적 증명의 근거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주인기표에 두는 한, 주인담론에 해당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학이 주인기표로 행위자의 자리에 위치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심플리치오가 스스로는 어떤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도 참여하지 않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기대어 다른 지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그리하여 사물의 실재에 대한 불가능한 환상을 생산할 때 그의 과학은 주인담론이 된다.

반면에 사그레도의 과학과 살비아티의 과학의 차이는 대학담론

과 히스테리담론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지식이 행위자로서 사물에 말을 걸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분열된 주체를 생산한다. 하지만 그의 담론의 목적은 그런 지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법칙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하나를 알면 그것을 갖고 추론을 해서 둘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그는 살비아티의 과학적 발견에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결국 세계의 재법칙화로 나아간다. 살비아티가 사그레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증명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온갖 것들을 부여하는"(133) 사람으로 칭한다는 사실은 라캉의 담론유형론에 비추어 볼 때 그 함의가 더욱 깊어진다. 반면 살비아티는 분열된 주체로서 주인기표에 말을 걸고 "주인을 그의 지식이 결핍을 드러내는 지점까지 몰아세운다"(Fink 134). 그의 과학은 사물의 실재에 대한 환상에서 동기화되었으며 궁극적인 지식의 실패로 인해 항상 분열된 주체를 생산한다. 필자는 앞서 라캉이 과학을 대학담론에서 히스테리담론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혔는데 여기서 두 담론의 표면적인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사그레도의 과학과 살비아티의 과학 또한 둘 다 주인담론과 비교할 때 행위자로서 주인기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지식의 주도하에 주인기표를 진리화한다면 후자는 오히려 지식의 결핍을 이끌고 대신 오브제 아를 진리화하는 점에서 전자와는 정반대 입장에 위치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갈릴레이를 대변하는 살비아티의 과학을 히스테리담론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생애」가 다루는 갈릴레이의 과학이 교회라는 관습적 주인기표를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권력—비록 민중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할지라도—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담론을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레히트가 갈릴레이의 과학에 기대하는 정치적 책임은 갈릴레이가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과학의 담론적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갈릴레이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다음 구절은 갈릴레

이에게 과학은 종교와도 상충되지 않는데 이는 그에게 종교는 주인기표가 아니라 삶의 실재를 환기시키는 오브제 아로서 진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 나는 성서의 권위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치유를 위해 꼭 필요한 진리, 그리고 인간의 판단력을 완전히 넘어서서 성력의 계시 이외의 어떤 지식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과 판단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을 다른 방법으로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재인용; 요하네스 헴레벤 118).

언어활동으로서의 지식이나 판단으로는 결코 궁극적인 삶의 실재에 도달할 수 없다. 과학은 주인기표, 즉 세속화된 권력구조와 다툴 뿐이다. 지식 가운데서 오히려 지식의 결핍을 경험하는 분열된 주체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화』의 살비아티를 '히스테리컬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대화』에서 과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로서 결핍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숭고화(sublimation)에 주목한다. 히스테리담론에서 주체는 관습적인 의미화를 거부함으로써 수많은 결핍의 대상과 마주한다. 숭고화는 이 결핍을 부족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화를 위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존의 안정화된 의미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비루한 대상을 사물의 실재를 환기시키는 오브제 아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라캉이 의미하는바 대상이 궁극적인 어떤 "그것의 존엄"(Lacan 1992: 112)을 띄고 부상하는 것이다.

살비아티 과학의 중요한 특징인 사물의 수평화는 이런 숭고화의 한 형태다. 예를 들어 태양과 공이 둥근 물체라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에 놓일 때 과학적 발견은 두 대상을 물질로서 수평화하기 보다는 태양뿐만 아니라 공, 즉 관습적인 상징화가 결핍된 대상조차 진리의 담지자로서 격상시킬 때 가능해진다. 관습적인 비유를 빌자면, 의미의 풍요라는 점에서 태양을 공의 차원으로 하향 수평화하기보다는 공을 태양의 차원으로 상향 수평화하는 것에서 숭고화에 의한 새로운 지식 발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숭고화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화』 전반에서 살비아티가 자신의 과학에 대해 느끼는 아름다움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살비아티는 달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도 어쩌면 우주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조물주를 찬양하며, 찬미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117)고 우주에 대한 심미감을 토로하는가 하면 과학을 "아주 아름다운 유사성"에 의한 추론과 "신기하고 아름다운 고찰," 그리고 "아름다운 법칙들"에 근거한 것으로 찬미한다(164, 254, 353). 이런 심미감은 물론 「생애」에서도 언급되지만 지구가 지동설에 의해 중심에서 밀려남으로써 "한낱 별"이나 "수천 개의 별 중에 섞인 그냥 보통 천체"(53)일 수 있다고 언급되는 것 고려할 때 『대화』에서 보다 지배적이고도 일관되게 목격된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생애」에서 여성적 매력을 상실한 대상으로 묘사된 달이 갈릴레이의 초기 천문관측일지인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갈릴레이의 천문노트』(*Sidereus Nuncius*)에서 여러 번 "아름다운" 대상으로 묘사된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13]

이런 논의 끝에 필자는 만약 살비아티가 브레히트의 「생애」의 주인공으로 진리에의 배반과 헌신이라는 이중적 이력을 가진 인물

13) 예를 들어 갈릴레이는 "지구 지름의 16배나 되는 거리에 있는 달을 마치 지구 지름의 2배 거리쯤에 있는 듯 가깝게 보는 것 역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더 밝은 부분'에 흩어져 있던 작은 반점들에게서 매우 아름답게 관측된다"며 달의 관측을 더없는 심미적 경험으로 묘사한다(갈릴레오 갈릴레이 2004: 8, 21).

로 등장한다면 작품 끝에 어떤 윤리적 해석이 가능할 지 상상해본다. 적어도 그가 주인기표를 두고 교회와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의 학문적 욕망이 사물의 실재를 환기시키는 오브제 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학설 철회가 우주의 주인에 대한 진리는 포기하되 우주의 별과 행성과 같은 무수한 부분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수용 가능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대화』는 과학자란 어떤 신념이나 이익에 앞서 오직 오브제 아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자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Ⅳ. 나가는 말

브레히트가「생애」의 공연노트에서 관객이 등장인물에 대해 "경탄과 비판의 신중한 태도"(Brecht 134)를 유지하도록 특기한 점을 고려할 때 작가의 본래 의도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 보다는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브레히트는 베를린 판 이후에도 개작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잦은 개작 또한 고민의 흔적이지 작가가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님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개작 방향을 고려하면 작가는 점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그런 의도를 고려할 때 작품이 부각시키는 과학의 양면성에서 과연 의미있는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생애」에서 과학의 양면성은 과학자 갈릴레이가 체제저항적인 회의를 품고도 그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과학의 속성을 양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있는 결정도 불가능한 구조로 과학

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대화』는 해석상 중립적인 사물의 '수평화'를 정치적인 '평등화'로 재해석하는 것에 저항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과학의 정치적 참여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기를 멈추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대신 『대화』는 과학자란 회의를 통해 모든 사물을 진리의 담지자로서 격상시키며 어떤 체제에 도달하려 하지 않는 히스테리컬한 자로서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자임을 주장한다. 과학의 비정치성이야 말로 과학의 정치성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과학자에게 한편으로 과학자이기를 멈추고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거나 아니면 보다 과학적임으로써 과학의 잠재된 정치성을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과학의 이름으로 정치를 주장하거나 정치의 이름으로 과학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학자 이봉재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자에게 윤리적 각성을 요구하는 일은 "건전한 만큼 애매한 소망일 뿐"으로 과학의 가치는 "새로운 생각에 대한 관용, 그리고 확인된 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승인하는 용기"로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적 각성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화된 과학이라기보다는 저급한 과학이기 십상"이라고 주저 없이 주장한다(이봉재 15-20). 「생애」와 『대화』를 비교하여 읽는 일은 300년 전의 갈릴레이가 이봉재의 이 대담한 주장에 조용히 힘을 보태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음, 이무현 옮김,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 사이언스북스, 2016.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차경아 옮김, 「갈릴레이의 생애」, 『갈릴레이의 생애』, 두레, 2001, pp. 33-172.

Brecht, Bertolt, *Life of Galileo,* ed., John Willet and Ralph Manheim, trans., John Willett, London: Penguin Books, 2008.

2. 논문 및 단행본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음, 장헌영 옮김,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갈릴레이의 천문노트』, 승산, 2004.

김용수, 「라캉의 대학담론과 자본주의: 『세미나 17』을 중심으로」,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 이론』 제17권 제2호, 2012, pp. 103-122.

김태숙, 「라깡의 네 가지 담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현대정신분석』 제6권 제1호, 2004. pp. 39-61.

데이바 소벨 지음, 홍현숙 옮김. 『갈릴레오의 딸』, 생각의 나무, 1999.

박찬일, 「브레히트의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에 나타난 자연과학자의 사회적 책임문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요하네스 헴레벤 지음, 안인희 옮김. 『갈릴레이』, 한길사, 1998.

이봉재, 「과학 기술과 윤리」, 『과학 · 종교 · 윤리의 대화』, 궁리, 2001, pp. 15-28.

Biagioli, Mario, *Galileo, Courtier: The Practice of Science in the Culture of Absolutism,* Chicago: U of Chicago P, 1994.

Cohen, M. A, "History and Moral in Brecht's "The Life of Galileo", *Contemporary Literature* 11-1, 1970, pp. 80-97.

Esslin, Martin, *Brecht: A Choice of Evils,* London: Eyre Methuen, 1980.

Fink, Bruce,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95.

Geymonat, Ludovico, *Galileo Galilei:a Biography and Inquiry into His Philosophy of Science,* trans., Stillman Drake, New York: McGraw-Hill, 1965.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and Knowledge 1972-1973.*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Bruce Fink, New York: Norton, 1975.

_____. "Science and Truth", trans., Bruce Fink, *Newsletter of the Freudian Field* 3, 1989, pp. 4-29.

_____.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trans., Dennis Porter, London: Routledge, 1992.

Paskow, Jacqueline Merriam, "Brecht's "Leben des Galilei": The Modern Scientist as Voyeur", *Modern Language Studies* 22-4, 1992, pp. 42-56.

Paulsell, Patricia R., "Brecht's Treatment of the Scientific Method in his "Leben des Galilei", *German Studies Review* 11-2, 1988, pp. 267-284.

Spalter, Max, *Brecht's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7.

(투고일: 2020. 8. 17 심사완료일: 2020. 9. 16 게재확정일: 2020. 9. 18)

손현
소 속: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53
전자우편: hyks2@hanmail.net

[Abstract]

Brecht's "Life of Galileo" and Galileo's *Dialogue*:
Revisiting the Problem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Galileo Galilei

Sohn, Hyun

This essay aims to reexamine the problem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Galileo Galilei by reading together Brecht's *Life of Galileo and Galileo's Dialogue*.. The former is a dramatic work that revolves around the life of Galileo who is known to have withdrawn his theory of heliocentrism to escape political repression while the latter is a science book where three different scientists, representing three different scientific perspectives, discuss the heliocentric theory in a dialogic manner.

Attending on doubt as an essential scientific attitude in both the works, this essay explains that doubt results in duality in the character of Galileo in "Life of Galileo," which now hinders him from acting ethically and, in contrast, via hysterical resistance to institutionalizing or politicizing, in sublimity in *Dialogue* in the Lacanian sense that one idealizes an object of symbolic lack into an object of the real truth awaiting new exploration ever. I conclude thus that the scientist would take social responsibility either by stopping being scientific in adoption of a political stance or by being sheer scientific in denial of any political system.

Key Words : "Life of Galileo", *Dialogue*, scientist, social responsibility, doubt, duality, sublimity, discourse of the hysteric